



온라인이 일상이 되다

일상이 된 온라인 식품 구매

2020년 5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를 시행해 왔다. 이를 위해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과 식음료 업소 등에 대한 영업시간 축소, 방문객 수 제한,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과 경우에 따라 포장 판매(Take Away) 및 배달 서비스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정부 조치와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당 내부에서의 식사, 오프라인 유통매장 방문구매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2022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5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3년간 평균 30~40%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토코페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부카라팍(Bukalapak),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 중 토코페디아(34.5%)와 쇼피(30.5%)의 시장 점유율이 65%에 달하며 전체 온라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류 매출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년 대비 252% 상승하였고 이후 연평균 4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와 온라인 식품구매가 익숙해진 소비자들로 인해 향후에도 이런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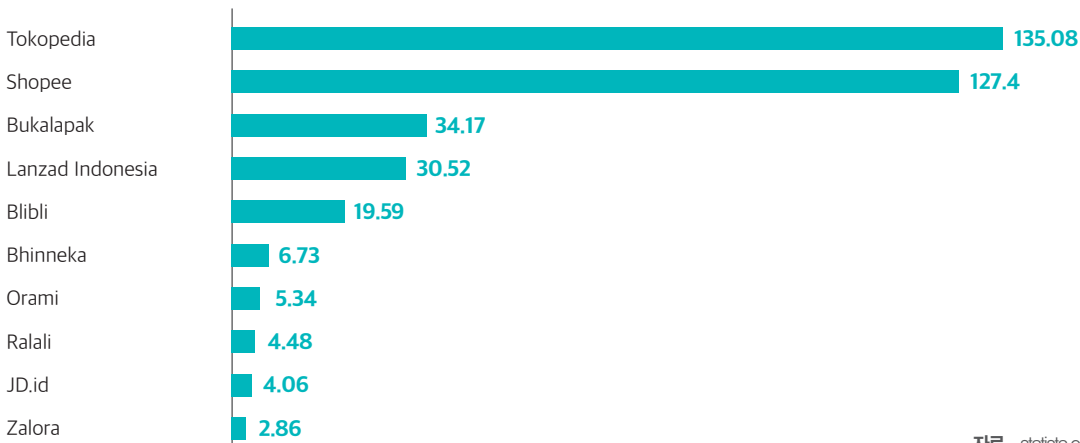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자료 유로모니터

구분	2019	2020	2021 (F)	2022 (F)
전체 매출	21,123	33,321	44,189	56,485
식품류 매출	595	1,340	2,000	2,810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월간 평균 방문자 수

(단위 : 백만)



자료 statista.com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 진출

소매산업 컨설팅 기관인 IGD(Institute of Grocery Distribution)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니 식료품시장 규모는 1,6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니 내 온라인 식료품 구매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속속 온라인 구매대행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온라인 식료품 구매 대행 서비스로는 Happy Fresh, 고젝(Gojek)의 고마트(GoMart), 그랩(Grab)의 그랩푸드(Grab Fresh) 등의 주문형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가 있고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블리블리(Blibli)도 고급 대형 유통마트 체인인 Ranch Market 및 Farmer's Market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 진출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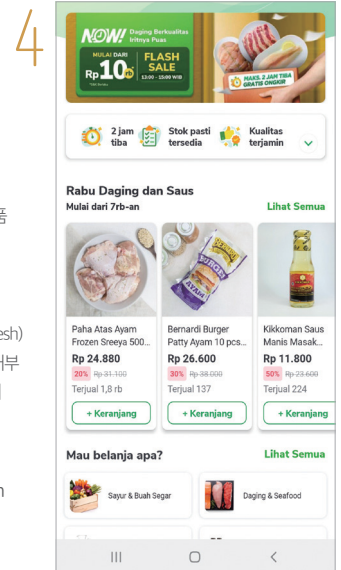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 인니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토코페디아도 지난 연말 '토코페디아 나우(Tokopedia Now)'라는 이름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자카르타에서 시작했다.

경쟁사의 방식이 주문을 받은 라이더가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들러 직접 장을 본 후 구매자에게 배달한다면 토코페디아 나우

- 1 대표 온라인 식료품 구매 대행 서비스, Happy Fresh
- 2 그랩(Grab)의 그랩푸드(Grab Fresh)
- 3 Tokopedia Now 내부
- 4 Tokopedia Now의 모바일

자료

- ① happyfresh.com
- ② gojek.com
- ③ uzone.id
- ④ 직접 캡처



는 식료품 전용 물류센터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주문받은 식료품을 물류센터에서 출하 후 주문자에 직접 전달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주문 후 2시간 배달 보장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작성자 자카르타지사 최동은

Key Point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 의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오프라인 식료품 구매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계속되는 도시화로 인한 1인 가정 증가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